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생체 데이터 활용 AI 경진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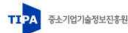
발행일 : 2020.05.14

생체 광학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신체를 투과한 빛을 포집하면,
피부 상처 없이 체성분 검사가 가능합니다.
제공된 데이터로 체성분 분석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따뜻한 바늘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총상금 총 360만원
대회기간 5월 15일 ~ 7월 4일
참가 <https://dacon.io>

주최 및 주관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은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기업 '데이콘'과 함께 '생체 광학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스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사업 i-CON의 AI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경진대회 역시 'AI i-CON'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바이오 분야 우수한 알고리즘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체를 투과한 빛을 포집하면 피부 상처 없이 체성분 검사가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됐다.

대회는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 AI 대회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AI와 생체 광학 데이터에 관심 있는 일반인, 학생, 기업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데이콘이 제공하는 가상의 생체 광학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식이다.

참가자들이 개발한 AI분석 알고리즘은 모의 데이터 분석 및 성능 비교를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 우수한 진단 알고리즘을 도출한 10개 팀을 선발해 상금을 수여한다. 총 360만원 상당 상금이 걸려 있다. 경진대회에 참가 및 자세한 사항은 데이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올해 운영 2년차에 접어든 AI i-CON을 'AI활용 사례 및 우수과제 발굴', '글로벌 협력 확대', '정책과제 제안'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AI기술 활용의 우수 사례가 발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국진 데이콘 대표는 "피부 상처 없이 체성분 검사가 가능한 방법은 안전하고 고무적인 기술로 평가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광학 데이터로 체성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